

중국 식민지시기 칭다오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 칭다오 도시계획의 역사적 분석을 중심으로(1891~1937)

임수접¹, 조성용^{2*}, 최진희³

¹광운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²광운대학교 건축학과, ³경기대학교 건축학과

A Study on the Urban Planning of Qingdao in the Chinese Colonial Period

- Focused on the Historical Analysis of Qingdao Urban Planning (1891-1937)

Shoudie Lin¹, Sung-Yong Cho^{2*}, Jin-Hee Choi³

¹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ersity

²Dep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ersity

³Dept. of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요약 칭다오의 근대 도시계획은 20세기 초 독일 식민시기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인들은 칭다오 계획에서 근대 도시계획 기법과 도시 건설 기준을 채택했다. 비록 독일 식민시기 이후에도 칭다오의 도시계획은 일본 점령시기와 중화민국 자치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도시 계획이 끊임없이 바뀌는 과정을 겪기는 하였으나, 초기 독일인들에 의해 수립된 도시 계획의 기본 골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칭다오의 도시계획 발전사는 여러 관점에서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칭다오의 도시 계획적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청도 식민시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시간 구분을 실시하였다. 시기별 역사적 배경을 결합하여 각종 문헌 자료를 분석하다.또한 표를 통해 시기별 도시계획 도면 자료등을 정리하여 칭다오 근대 도시계획의 발전의 변화를 뚜렷이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칭다오 현재 도시계획 분석을 위한 풍부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범위를 서정하여 제2장은 식민시기 칭다오의 도시계획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특징을 정리하여 결론을 맺다.

Abstract The modern urban planning of Qingdao began in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German colonization. At that time, the Germans adopted the modern urban planning philosophy and standards for building high-level cities in Qingdao's planning. Therefore, in the turmoil that followed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nd the Republic of China, although urban planners constantly changed, they always planned according to the initial plans of the city. Therefore, this paper conducted a time division on the urban planning of the Qingdao colonial period through an analysis of various literary materials by combining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different periods. This can be the basis for an analysis of current urban planning in Qingdao. This paper is divided into seven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for description purposes and scope. In Chapter 2, the Urban Planning of Qingdao in the Chinese Colonial Period is confirmed and explained. Chapter 3 co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nning.

Keywords : Urban Planning, Qingdao, German Colonization Period,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Chinese Architecture

본 논문은 2017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Yong Cho(Kwangwoon Univ.)

email: chosy@kw.ac.kr

Received August 9,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November 7,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 칭다오(靑島)의 역사에서 1897년부터 1937년까지의 기간은 도시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쟁의 영향으로 칭다오의 통치 권력이 수차례 변하였으며, 그때마다 서로 다른 도시 계획이 적용되었다. 식민지배시기 당시의 도시계획들 사이에는 지배 권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도시 계획적 전략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칭다오의 도시 형태는 기본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칭다오의 지정학적 가치와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칭다오의 도시형성 초기의 발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 도시계획을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식민시기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서 칭다오의 도시계획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칭다오의 도시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도시적 또는 건축적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중국 청(淸) 시기에 이루어진 칭다오 통치기구의 설치 는 이 도시가 근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1] 1897년에 일어난 독일의 침략과, 독일 통치 권력에 의하여 행해진 칭다오 도시계획은 향후 이 도시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시기 이후 칭다오는 도시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891년부터 1948년 사이 칭다오의 도시계획 및 건설은 중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다양한 행정 주체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시기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독특한 도시 발전의 역사가 형성되었다. [1]

양병덕(楊秉德)[2] 은 그의 저서 『중국 근대도시와 건축(中國近代都市與建築)』에서 칭다오 도시계획의 시대구분을 근대 도시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본 연구자는 위의 구분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계획사적 의견을 종합한 결과 칭다오의 도시 발전사를 아래의 3시기 7단계로 제시한다. (Table 1.)

Table 1. Period classification of Qingdao urban development stage

Stage	Year	Synopsis
S t a g e 1	1891~1914	The Beginning of Urban Planning in Qingdao Modern City
	a 1891~1897	The Formation of Urban Planning in Qingdao Modern City
	b 1897~1914	German occupation, entry into modern cities and the formation of colonial plans
S t a g e 2	1914~1929	Maturity of Qingdao Modern City Planning and Establishment of Planning
	c 1914~1922	Japan's First Occupation, Succession and Expansion Plan of German Planning Model
	d 1922~1929	The Beiyang Government of China, inheriting the plans of Germany and Japan The establishment of a Chinese autonomous planning and management organization
	e 1929~1937	The KMT Government of China established the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and planning system
	1937~1949	Urban Planning of Qingdao during the War
S t a g e 3	f 1937~1945	Japan's re-occupancy, urban planning the collapse of enforcement and colonialism
	g 1945~1949	The KMT Government of the People's Party, Restoration of Urban Construction and Urban Planning in Qingdao

2. 식민시기 칭다오 도시 계획의 시기별 특징

근대도시로 발전하기 이전의 칭다오는 원래 조용한 어촌이었다. 그런데 1892년 장가오위엔(章高元)[장가오위엔(章高元) (1843-1913), 청 왕조 칭다오 제1대 총병] 등 청 왕조 군부가 '칭다오 초기 국방계획' 초안을 정하면서, 잔교 [잔교(棧橋) : 칭다오 최초의 군용 시설이다. 1892년 청 왕조 정부에 의해 건설됐다.] [3]에는 탄다오 (團島) 등지에 구식 보루를 짓고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포대를 만들고 자오저우만(膠州灣)[황해(黃海) 중부, 자오둥반도(靑島半島, 교동반도) 남안,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경내에 걸쳐있는 만(灣)으로 나팔형 모양이며 예로부터 교주(膠州)에 속하여 이름이 유래되었다. 해협을 바라보는 육상에 군사 방어시설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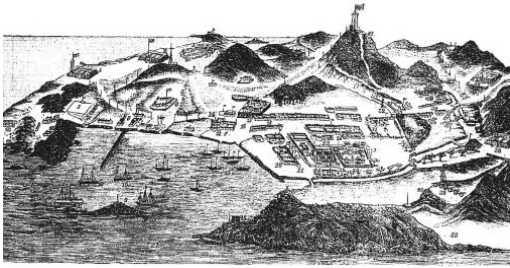


Fig. 1. Qingdao during the Qing Dynasty: Around Yamen (Commandergovernment Office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2.1 독일 점령시기: 근대도시로의 진입과 식민주의 계획의 형성(1897~1914)

칭다오는 청나라 때부터 줄곧 중요한 민간항구이자 군항이었다. 따라서 칭다오의 도시 발전은 항구 도시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특히 독일 점령시기 [1897년 독일은 巨野 선교사 피살 사건으로 자오저우만(胶州湾) 점령했다.] 이후부터 칭다오는 근대 항구도시로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칭다오의 도시 역사는 이 특수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독일은 자오저우만(胶州湾)을 점령하기 전에 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5, 독일의 지질학자와 지리학자]를 파견하여 중국 내륙을 답사하도록 하였다. 독일이 胶州湾를 거점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기의 사전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Ferdinand von Richthofen은 산동성의 탄광 자원에 주목하였으며, 더구나 胶州湾의 우월한 지리적 조건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내륙으로 통하는 철로를 통해 해상과 내륙의 연결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크게 주목하였던 듯하다. 이러한 발상은 이 시기가 19세기인 것을 감안하면 대해 매우 앞선 인식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향후 칭다오의 도시계획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1898년 胶州湾를 점령한 뒤 칭다오 총독부를 통하여 첫 도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같은 날 <독일 칭다오 지역 토지 구입 조례>[4]를 반포한다. 또 1898년 10월 3일에는 토지 경매를 시작했다.

1898년 11월 11일 독일의 왕 Wilhelm II는 칙령을 통하여 조차지(胶澳) 시내 이름을 '칭다오(靑島)'라고 명명했다. 이 이후 독일 총독부는 칭다오에 16년에 걸쳐 도시 건설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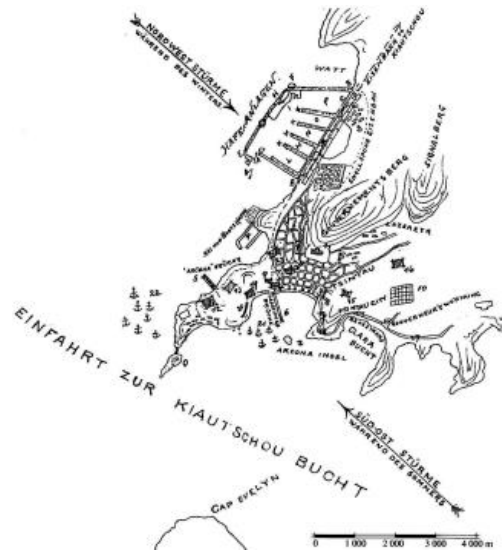


Fig. 2. A Survey of the Peripheral Areas of Qingdao in 1899

2.1.1 <칭다오 도시 계획> 제1판, 제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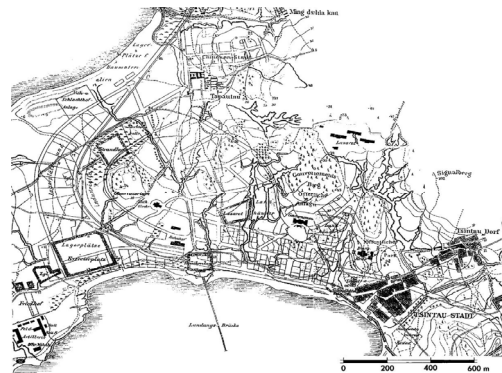






Fig. 3. "Qingdao City Plan" First edition (1898) (Qingdao City Archives)"

독일 통치시기에 가장 먼저 수립된 이 계획도는 1898년 10월에 편찬된 《자오저우 연감》에 기재되어 있다. 이 계획의 작성에는 독일 총독, 해군 작업 팀, 총독부 건설부 부장인 게오르크 그롬쉬(George Gromsch) 및 중국계 사무 전문가 윌리엄(Wilhelm Ludwig Schrameier, 1859~1926)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곳이 더 큰 자오저우만과 광활한 대지가 있고 장벽이 없으며, 소기류를 형성하는 데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도시 건설 경험이 풍부한 유럽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반대로 자오저우만 남쪽에 있는 대지는 작지만, 북쪽

의 구릉이 있어서 도시 계획에 적합하다. 철도는 주로 자 오저우 만을 따라 항구에 도착했다.”[5]

Table 2. The period of Qingdao urban development during the German occupation period

area	function	location
a. Ouren-qu	Residential area (Business area)	
b. Dabao-dao	Residential area	
c. Taidong-zhen	Industrial area (Residential area)	
d. Taixi-zhen	Residential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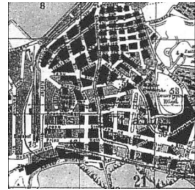

유럽인 거주지역과 중국인의 구역을 구분하여 건설하는 것은 독일 식민정부에서 실시한 칭다오 계획의 기본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유럽인의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는 칭다오구(a), 중국인들의 주거 및 생활지역은 태동진(台東鎮) (c), 타이미엔진(d), 따바오다오(b) 등이 지정되었으며, 이 두 구역의 경계선은 명료하게 구분하였다. (Table 2)

〈칭다오 도시 계획〉제2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태동진(台東鎮)의 건설이다. 이 마을은 원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거주지역으로서, 불결한 식수와 위생 습관 때문에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고, 점차 감염병이 심해 현지 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899년 가을, 총독부는 도시의 마을을 허물고 도심에서 직선거리로 3.5km 떨어진 곳에 태서진(台西鎮) 노동자 주택 단지를 짓기로 했다. [6]

2.1.2 구인구(歐人区)의 발전 과정

구인구(歐人区)는 총독부를 중심으로 더시엔로(德縣路), 바오딩로(保定路), 다구로(大沽路)를 횡단 연결하며 중산로(中山路), 관타오현(館陶路)이 종단으로 이어진다. 독일 총독부는 도로계획에서 방사형, 로터리형과 자유곡선형을 세 가지 기본 도로 형태 처리 방법으로 삼았으며, 그중 방사형 도로를 특히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도로 배치를 통해 독일 총독부는 칭다오에서 포대, 군사 기지, 야전 병원 등의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행정중심과의 상호간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전쟁 지휘에 통일성을 갖추고 긴급 사태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는데 있어 독일 식민정부의 군사적 의도를 직접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의도는 다음의 문장에서 잘 표현된다.

Table 3. Ouren-qu 1899~1918 City Plan

Ouren-qu			
			
1899		1901	
			
1914		1918	

“자연적인 지형조건에만 영향 받지 않고 자연과 행정, 군사를 모두 고루 갖추어야 한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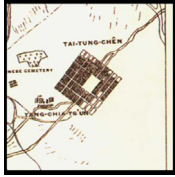
독일인은 현대적 도시 행정 도로로 거듭나도록 정비함으로써 칭다오 자유곡선형 도로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이후 연안 도로를 연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2.1.3 태동진 (台東鎮), 태서진 (台西鎮)의 발전 과정

중국인 거주 구역은 앞서 살펴본 유럽인 거주구역에 비해 도시계획의 완성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타이동진, 타이서진 등 중국인 구역은 거의 대부분 바둑판형 거리 모델을 택했다. 이는 도로 면적을 최소화하여 주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함인데, 특히 타이동진의

도시 밀도는 이후 수십 년간 발행된 각종 칭다오시 지도에서 유난히 눈에 띌 정도였다. 중국인 구역의 비좁은 땅과 토지 또한 유럽인 구역의 광활한 아스팔트 도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Table 4. Taixi-zhen, Taidong-zhen 1897 City Plan

	Taixi-zhen	Taidong-zhen
1897		

1910년 독일 식민정부는 유럽 및 중국인 거주지역의 경계선을 제거한다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미 균형을 잃은 지역간의 격차는 향후 도시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초래하였으며, 향후 도시가 확장하는 데 각종 장애를 일으켰다.[8]

2.2 일본 점령시기: 칭다오 근대도시계획의 성숙 (1914~1922)

1914년에 발발한 일독전쟁의 여파로 도시 안팎의 도로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때문에 일본의 칭다오 점령 이후 칭다오는 대대적인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는 칭다오 도시 형성 이후 최초로 발생한 손상이었으며, 또 첫 번째의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기도 했다. 이 복구 작업에서 일본은 도시의 교외화 및 도시영역 확장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일본 점령기의 칭다오 도시 계획은 주로 독일인에 의해서 건설된 지역 주변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일본 점령부는 기본적으로는 독일의 도시계획 모델을 바탕으로 부분적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타이둥(台東), 쓰팡(四方), 창커우(滄口) 등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시설을 복구하면서 도로의 폭을 6m에서 16m로 확장하였다. 이때 시내 도로 약60km, 교외지역 도로 25km를 신설했다. 새로 건설한 시내도로는 칭다오시 북구와 타이둥 일대에 집중되었으며 모래와 자갈을 사용한 보통 수준의 도로였다. 랴오청로(聊城路)와 샤오바오다오(小鮑島) 일대 도로는 아스팔트를 사용했으며 시멘트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그들의 높은 건설기술을 과시하였다. 도로 명칭은 징강정(靜岡町), 다촌정(大村町), 즈더정(治德町) 등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했다.

Table 5. Ouren Qu 1924 Cit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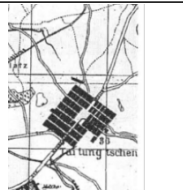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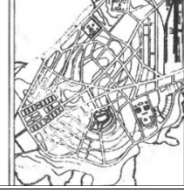



	Ouren-qu
1924	

Table 6. Taixi-zhen, Taidong-zhen 1913~1928 City Plan

	Taixi-zhen	Taidong-zhen
1913		
1918		
1924~1928		

독일의 칭다오 도시계획이 행정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면, 일본 점령군은 칭다오를 일본 자본에 의한 공업 및 상업지역의 확보에 방점을 두고 도시의 규모를 확장시켰다. 이는 일본 식민시기 일본인이 칭다오로 대거 유입되면서 독일인이 계획한 따바오다오 상업구는 경제 팽창의 수요를 따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독일이 정한 도시계획에 따라 항구 지역 토지를 확장하고 대규모 간척사업을 실시하여 주택을 지음으로써 도시 범위를 독일 점령 시기의 3배로 확대하였다.

“(일본은) 3단계에 걸쳐 도시를 확장하려 하였다. 1단계(1916~1920)에 북한과 동북쪽으로 대포도 상업 지구를 확대한 것은 종전 독일의 계획을 이어 간 것이다. 2,3 단계의 계획은 주로 항만과 철도를 위주로 하지만, 시국이 불안정하여 실현할 수 없다“[8]



Fig. 4. Zones Expanded in the during the Japan occupation period

일본 식민정부의 도시계획에서 도시를 확장하는 동시에 도시 녹화와 개방 공간의 확보를 중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일본은 독일 점령 시기에 건설된 공원을 보존하고 새 공원과 도시 녹지를 조성하여 칭다오의 공공생활과 도시공간 형태를 풍부하게 하고자 하였다.



Fig. 5. In building factories in this area, the Japanese mainly consider the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There is basically no urban planning except for the factory building and the staff dormitory next to it. There is only one road connecting the city center.

독일인은 자오지로에 의존하여 산동 내지의 광산물을 수탈하였다. 일본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연안 철도 노선을 건축하고 내외, 따강, 푸스 등 류다 방직 공장, 스키 실크, 칭다오 제염소 등 기타 공업 또한 부근에서 빠르게 뿌리내렸다. 새로운 도시 기능을 지닌 공업 구역이 칭다오 북부에서 싹 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이 쓰팡과 창커우 일대에 공장을 건설한 이유는 운송의 편리함을 고려한 것부터, 공장 건물과 그 옆의 직원 기숙사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쓰류로의 전신인 “따마로”이다. (Fig. 5) 이는 “도시 건축은 있지만 도시 도로는 없는” 특수한 현상을 야기하였다.[9]

3. 결론

독일 점령기에 칭다오는 대대적인 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다. 독일은 근대시기에 정립된 유럽식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계획 방법을 칭다오 도시계획에 적용하려 하였다. 이렇게 적용된 독일 점령 시기의 칭다오 도시계획은 오늘날에도 칭다오의 도시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식민 점령지라는 정치군사적 입지는 칭다오 도시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험적인 대안을 많이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는 후에 칭다오의 도시발전에 상당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일본 점령기의 도시계획은 이전에 독일인이 건설한 도시의 기초위에 일본 본토시민을 칭다오로 이민하고자 하는 정책을 기초로 도시 확장과 산업자본 투자 장려정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점령 시기의 도시계획이 독일과 다른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본 논문은 식민지 시기 칭다오의 도시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첫째 초기 도시계획에서는 칭다오의 자연환경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기능을 배분하였다.

둘째 독일 점령기 도시 주거지역은 원주민과 점령 주둔군의 거주 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이는 도시의 불균등한 성장을 초래하였다.

셋째 도시건설의 투자원가를 절감하고 교통편의성을 고려한 칭다오의 도시계획은 철도를 따라 도로가 발전하였으며, 도시가 선형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넷째 칭다오의 도시발전은 초기부터 서양식 도시계획

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습과 도시형상을 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도시 형태는 식민지 시기 이후 현대도시로의 발전과정에서 여러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식민통치 시기 칭다오의 도시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서 문헌자료가 중심이 되었으므로, 현재 칭다오의 도시적 상황이 모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추후 연구에서는 독일 및 일본군 점령 지역의 도시적 특징을 실측 및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비교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Li Balhao, Li Cai, "A STUDY ON THE HISTORY OF QINGDAO EARLY- MODERN CITY PLANNING (1891-1949)", Urban Planning Forum, China, pp81~85, 2005 June
DOI : <http://doi.org/10.3969/j.issn.1000-3363.2005.06.016>
- [2] Yang Bingde, Modern Chinese Cities and Architecture, China Construction Industry Press, pp12, 1993
- [3] Qingdao Municipal Government, Records of Cultural Relics and Scenic Spots Protection in Qingdao, Qingdao Press, pp42, 2000
- [4] Memorandum on the Development of Ao-jiao, 1905-1906, Available From: Qingdao Archives
- [5] Jiaozhou-Bay Yearbook, October 1898, From: Qingdao Archives
- [6] Qingdao City Planning Plan, 1924, From: Qingdao Archives
- [7] Li Dongquan, Study on the Urban Planning and Evolution of Qingdao, 1897-1937, China Construction Industry Press, pp52, 2016
- [8] Jin shan, Modern Urban Architecture in Qingdao 1922-1937, Tongji University Press, pp22, 2012
- [9] General Map of Qingdao, Qingdao Press, 2002, From: Qingdao Archives

임 수 접(Shoudie Lin)

[정회원]



- 2010년 9월 : 중국 청도이공대학교(건축학사)
- 2014년 9월 : 광운대학교 건축학과(건축학사)
- 2017년 9월 ~ 현재 :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재학

<관심분야>

중국건축사, 건축계획

조 성 용(Sung-Yong Cho)

[정회원]



- 2000년 7월 : 로마대학교 건축대학(건축학석사)
- 2004년 11월 : 로마대학교 건축학과(건축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

<관심분야>

건축역사, 건축이론

최 진 희(Jin-Hee Choi)

[정회원]



- 2000년 7월 : 로마대학교 건축대학(건축학석사)
- 2006년 11월 : 로마대학교 건축학과(건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도시건축설계, 건축이론